

# “내 뒤만 따라다니면 너는 언제 부처 될래?”

## 천자암 조실 활안 스님

조계산 중허리쪽에 위치한 천자암에 들어서면 마주보고 있는 두 그루의 향나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장정 서넛 명이 손을 맞잡고 애워싸야 할 정도로 굵은 나무줄기에는 웅 한 마리가 휘감고 있는 듯하다. 오랜 세월동안 풍상을 겪으면서 웅틀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웅들은 금방이라도 승천할 것처럼 하늘을 향해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다. 마주보고 선 나무들의 사연이 궁금해진다. 죽어서도 서로를 못 잊어하는 남녀가 나무로 환생한 것은 아닌지 상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쌍향수(雙香水)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읽고 나면 자신의 빈약한 상상력이 부끄러워진다. 고려 시대에 보조 국사와 보조 국사의 제자인 담당 국사가 중국에 유학을 갔다. 특히 담당 국사는 왕손(王孫)인데도 부귀영화를 뿌리치고 출가해 보조 국사의 제자가 됐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짙고 온 향나무 지팡이를 이곳 천자암에 나란히 꽂아두었다. 향나무 지팡이는 햇빛과 비의 자양분을 받아 뿌리가 내리고 가지와 잎이 나서 자랐고, 그렇게 서로를 지켜 주면서 자란 세월이 800년이 넘는다. 두 그루의 향나무는 마치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절을 하고 있는 듯해 사람들은 예의 바른 스승과 제자로서 아직도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천자암에는 천연기념물인 쌍향수와 쌍벽을 이룰 만큼 유명한 선승 활안 스님이 있다. 활안 스님은 공부인이 오면 그 사람에 맞는 법거랑을 펼쳐서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입체의 활과 딱산의 방을 자유자재로 쓰면서 선문답을 즐기는 것이다. 활안 스님은 선문답을 즐기는 것이 되겠지만, 당하는 쪽은 곤혹스럽기만 하다.

서른셋에 통도사에서 자운(慈雲)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한 후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방부를 들이며 40안거를 성만했다. 활안 스님은 60여 년을 오직 선방과 토굴에서 치열하게 수행정진 했으며, 경허 선사-만공 선사-보월 선사-금오 선사-월산 선사의 법맥을 잇고 있다. 한번 어떤 목표를 정하면 목숨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정진한다는 활안 스님은 서른두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활안 스님은 광양시 백운산 토굴에서 죽기살기로 공부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4년 동안 백운산에서 '나고 죽는 이전의 나는 무엇인가(父母未生前 是誰)'를 화두로 삼아 참선 수행을 했다. 토굴에 가려면 마을에서 세 시간이나 걸어야 할 만큼 깊은 산 중이었다. 이곳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혼자서 해결해야 했으니 따로 시간을 내어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기도 했다.

“일을 하다 보면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할 때가 있어. 겨울에 월동하려면 불살개가 있어야 하니 소나무 뿌리가 있길래 그것을 낚으로 자르다가 손까지 베고 말았어. 어두운 게 얼마나 깊이 벤지도 몰랐어.

방에 들어와 상처에 다이지를 바르고 나서 촛불을 켜고 보니 바닥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 누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피는 털 흘렸을 건데, 가난에도 암가난 숫가난이 있다면, 살수록 어찌 이리 외롭다! 손을 땀어내고 부엌에 들어가 된장국을 끓이고 해서 허기를 채웠지. 피를 흘리면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 쓸쓸하고 외롭네. 밤 한술 떠먹고 죽비 세 번 치고 잠속에 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지금 사는 것도 꿈속이지만, 비몽사몽간에 9척이나 되는 여래가 나타나 당신의 오른팔로 베개를 삼아서 나를 누이고는 말씀하시네. ‘너만 외롭냐?’ 과거의 제불(諸佛)성현도 이 고비를 넘을 때면 피골이 상접해 뼈가 살아 되고 살이 뼈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쳤어. 오늘의 제불이 모두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미래의 제불도 너와 똑같은 과정을 거칠 것이나!’ 이 말씀에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 없어. 하지만 여래의 말씀이 귀에 생생하게 남으니라 유리곽에 모셔진 부처님께 삼배하고 이렇게 기도했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이 가진 물심(物心)을

지, 생멸은 공하다. 이것은 생과 멸은 한 생각 설계를 잘 해서 고놈 다 쓰고 내가 정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마음에 북이 한결 좋았던 나뻐든 간에 다 쓰고 고놈을 또 뒤처리해서 도로 천지의 본원으로 환원시키는 것이 생명이야.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생명이려면 무한(無限)이란 두 글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 고놈을 쓸 줄 알면 그 사람은 지혜의 판단력이 생긴 사람이며, 천지 생명이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가 먼저라면 천지생명이 순서대로 가서 ‘나는 당신의 몸이 되어 주겠다’고 그래요. 생명 때마다 그와 같은 본래 원인이 이리저리 걸림 없이 다 엮여져 있거든. 그래서 생명의 본체는 점으로 금강(金剛)의 불가사라야.’

밥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먹는 것이 전에 생명 이전에 우린 불가사의한 금강과도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는 귀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다.

스님은 갑자기 객을 유심히 보시더니 웃으면서 한 마디 하신다.

“내가 화장품 가게에 가서 눈에 바르는 시커먼 거 하나 사 줄까?”

면 괜히 헛짓하는 거여. 마음이 어두우면 죽도록 일해 놓고 끝에 가서 서는 한바탕 얻어맞고 나오게 되지. 그러면 ‘내 팔자야’ 하고 신세타령이 절로 나오지.



자기 어두운 것은 모르고, 마음이 밝아 놓으면 그 밝은 내용으로 설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뒤처리를 다 해도 그 밝은 지혜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 이 도리를 알겠는가?”

활안 스님은 70년대 초 오대산 상원사 청량선원에서 수행할 때 수행정진력과 공부의 깊이에 감복한 선방수좌들이 조실로 추대했지만 ‘모두 부질없는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떨쳐 버리고 천자암으로 발길을 옮겼다. 한 채의 오두막집에 불과했던 천자암을 법당과 선원, 법왕루, 종각, 나한전 등 격을 갖춘 사찰

## 마음자리 정해지지 않으면 내 것도 다 남의 것 선방·토굴에서 60여 년간 치열하게 수행정진

탁 털어서 나에게 다 주시오. 내 배가 부르면 다 주지, 안 줄 것이 없지요. 내 말 안 들으면 뭇 허러 거기 앉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일이 생생해.

스님은 그날부터 밥 먹을 때마다 “부처님이시여, 당신이 부처님이라면 말 없이 들으시오. 내가 과거 세상에는 끝없이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상황을 바꿔야겠소. 끝없이 많은 상대를 모두 빛이 나게 하고, 상대방이 다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나를 의지하려는 곳에 기쁨을 주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앞으로 중생을 교화해 고통에서 구해주겠다는 발원이다. 활안 스님은 팔십이 넘는 노구인데도 ‘일일부작(一日不作)이면 일일불식(一日不食)이라’는 백장청규 정신에 따라 여전히 발일을 한다. 감자, 호박, 깻잎, 버섯, 고추, 고구마 등 평상시 먹는 것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해결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고 여쭙았더니

“어디 밥 먹는 일은 쉽다?”라고 답하신다.

“나무 한 그루를 딱 심어 놓으면 누가 키워 주는 것이 아니고 나무 자체의 힘으로, 땅의 힘으로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잖아. 그러나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기본은 사계절의 원리와 맞물려 있어. 생명의 본체는 무생(無生)이야. 천지자연 생명계를 다 돌봐도 생명의 근원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야.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생명이

눈에 바른 푸른색 아이세도 우가 스님의 눈을 불편하게 했나보다. 조금은 민망스러워서 “예”라고 답했다.

“아, 그런데 화장품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네꺼야.”

“그 안에 있을 때는 전부 내 것이라도 가게를 나오고 나면 내 손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아니지. 가게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안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쓰고 나왔지.”

스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마음자리가 정해지지 않으면 내 것도 다 남의 것이여.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되어 행복하려면 우선 밝아야 해. 어두우

### 활안 스님은 ...

1945년 순창 송평사로 출가. 1953년 월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58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상원사, 청량선원,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제방선원에서 40안거 성만.

1977년부터 천자암 조실로 있으면서 동안거 하안거 때마다 옹몽정진을 하고, 매년 백일동안 폐관정진 하는 등 선객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19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위원으로 선출. 지금은 천자암에 주석하고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활안

## 유기농 보이차(ORGANIC PUER TEA) 유기농 보이차의 보급화 선언!

현불샵(hyunbulshop.com) 입점 기념 15%할인 판매 250,000원 ⇨ 15% DC 특별 할인가 212,500원

이제 특별한선물유기농 보이차선물세트 (유기농보이차 속차 357g + 대나무보관통 + 보이차 다기세트 7종)

1등급 100% 유기농 보이차만을 엄선하여 준비했으며 보이차 전용 다기세트는 드리는 분의 정성과 선물의 격을 한층 더 높혀 드립니다.

- 제 6기 중국보이차 “보이차왕” 수여
- 미국 FDA, 유기농인증 획득 USDA
- 일본 유기농인증기관인 JAS

중국 보이차 기업 중 최대규모인 670만평 이상의 보이차 생산단지과 100%유기농법으로 생산하여 그 품질과 맛이 가장 뛰어난 (주)고진 유기농 보이차! 후 발효차인 보이차의 깊은 맛과 오묘한 향의 끝맛을 그대로 발효시켜 황제의 기운을 느끼게 하는 특별한 유기농 보이차입니다.

중국에서도 유기농회사로서 처음으로 생산 공정과 가공공정 발효공정에 특허를 받아 융생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발효시켜서 만든 유기농보이차입니다. 중국황제가 마시던 보이차는 오래 묵을수록 귀한 고가의 차며, 미생물에 의한 발효를 거치는 후 발효 차이며 오래 묵히면 묵할수록 고가의 차가 됩니다. 방습통풍이 잘되는 적절한 온도하에서 보이차는 독특한 맛과 향, 약효를 가지게 됩니다.

유기농 보이차는 상류층이 주로 애용하는 고가의 차이며 국가주식 후진타오 보이차를 즐겨 마시는 보이차 애호가입니다.

중국의 주석 후진타오가 융생유기농 보이차를 접하고 나서 유난히 맛과 품질이 뛰어난다는 점을 알게 된 후, 현재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융생 보이차만을 애용하고 있고 최고의 품질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국제적으로 홍보를 대신해 주고 있으며 유명인사 방문 시 융생의 보이차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 유기농 보이차 속차

- 제품명 : 유기농보이차 속차 · 식품유형 : 침출차 · 내용량 : 357g
- 제조회사 : Yunnan Longsheng Green Industries (group) LTD
- 원재료명 : 보이차 100% · 원산지 : 중국 운남성 · 수입판매 : (주)고진 · 포장재질 : 종이제
- 제조일자 : 2007년 03월 01일 (제조일자는 2007년이지만 2006년에 수확한 것임을 사용해 제조하였습니다)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년 (보이차는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지기때문에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만 잘 하시면 유통기한을 거뜬날 수 있습니다.)

\* 불교온라인소핑을 현불샵(www.hyunbulshop.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설명/문의 : (주)고진 031)437-1570, 1580 · 주문전화 : 02)2004-8215~6

## 정도원 추코파이고뽕스님

##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로 평소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하 효과를 거두었다.

### 정도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위한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신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차 물에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화급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진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정도원 : 경북 군위군 소모면 복성리 22 ☎ 054-383-0407

###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① 크기 및 색상 : 고추껍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피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오렌지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습니다.
- ② 맛 :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③ 혈당저하 체험 :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④ 성인병 예방에 효과 :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찜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⑤ 품종 :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국립기술센터의 농림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혜의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맹필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7월 첫출시를 앞두고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분자들에게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